



# 제99차

## 풍수원 성체현양대회

2022년 6월 16일(목) 10시30분 유적지 풍수원성당

제 1 부 미 사 성체광장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

입당성가	304 83
제 1독서	창세 14,18-20
화 답 송	◎ 멜키체덱과 같이 너는 영원한 사제로다
제 2독서	코린토1 11,23-26
부 속 가	유인물 뒷장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 알렐루야
복 음	루카 9,11L-17
강 론	원주교구장 조규만 바실리오 주교
봉헌성가	210 211 221 512 216 217 220 219
성체성가	174 188 498 163 165 175 176 170

- + 고해성사는 성체광장 주위 10곳에 마련된 고해소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 + 성체강복은 성체동산과 풍수원성당 안에서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 성체행렬

### 502 주의 빵을 서로 나누세

- 1) 주의 빵을 서로 나누세 주의 빵을 서로 나누세 주님의 계명을 지켜려 하는 자여 주의 빵을 나누세
- 2) 주의 진리 서로 나누세 주의 진리 서로 나누세 죄악을 피하고 주님 뜻에 따라서 진실하게 살아가세
- 3) 주의 기쁨 서로 나누세 주의 기쁨 서로 나누세 주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으니 서로 기쁨 나누세
- 4) 주의 희망 서로 나누세 주의 희망 서로 나누세 억눌린 자들을 일으켜 세우면서 서로 희망 심으세

### 501 받으소서 우리 마음

후렴 : 받으소서 우리 마음과 우리 사랑을 주여 우린 당신의 것

- 1) 주님의 식탁에 우리 모여 몸 바친 주의 사랑 기억하리 주님의 살과 피를 받으오니 우린 당신의 것
- 2) 목마른 우리의 굢주림을 주님의 몸과 피로 채우시니 가난한 우리 맘을 드리오니 우린 당신의 것
- 3) 주님의 음성을 우리 듣고 가르친 주의 계명 지키오리 영원한 잔치에 모였으니 우린 당신의 것

### 504 우리와 함께 주여

후렴 : 우리와 함께 주여 머무르십시오 식탁에 같이 앉아 빵을 나눕시다

- 1) 착하신 우리 목자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고 다시 사셨네
- 2)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네 나 주님의 집에서 영원히 살리라
- 3) 파란 풀밭에 나를 눕게 하시고 생수를 마시어라 물터로 나를 끌어주신다
- 4) 음식을 차려주고 날 초대하셨네 내 술잔 넘치도록 가득하나다

### 154 주여 어서 오소서

- 1) 주여 어서 오소서 내 마음에 오소서 애타게도 바라니 어서 빨리 오소서
- 2) 예수 없이 내 영혼 어찌 능히 살리요 이렇듯이 애원함 굶어 들어 주소서
- 3) 온 세상의 모든 복 만족함이 없으리 주의 사랑 내 맘에 만족하고 남도다
- 4) 주님 내게 오시기 항상 부족하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깨끗하여 지리다

### 161 성체를 찬송하세

- |                       |                        |
|-----------------------|------------------------|
| 1) 하늘에 별들을 누가 셀 수 있는가 | 2) 강변에 모래알 헤아릴 수 있는가   |
| 3) 바다에 물방울 누가 셀 수 있는가 | 4) 논밭에 이삭 수 누가 알 수 있는가 |
| 5) 나무에 잎사귀 헤아릴 수 있는가  | 6) 영원과 무궁을 깨달을 수 있는가   |

후렴 : 이만큼 무수히 성체를 찬송하세

행렬순서      십자가 ← 교우들 ← 성가대 ← 사제단 ← 성체 ← 사제단 ← 교우들

## 성 토마스의 성체 찬미가

### 분      향      193 지존하신 성체

- 1) 지존하신 성체 앞에 꿇어 경배 드리세 묵은 계약 완성하는 새 계약을 이뤘네  
오묘하온 성체신비 믿음으로 알리라
- 2) 영원하신 성부성자 위로자신 성령께 구원 받은 환희로써 영광 찬미 드리세  
무한하신 권능권세 영원무궁 하리라 아멘

## 성체 강복

## 하느님 찬미

## 성 토마스의 성체찬미가

- 엎디어 절하나이다  
눈으로 보아 알 수 없는 하느님  
두 가지 형상 안에 분명히 계시오나  
우러러 뵈올수록 전혀 알 길 없습기에  
제 마음은 오직 믿을 뿐이옵니다
- 보고 맛보고 만져봐도 알 길 없고  
다만 들음으로써 믿음 든든해지오니  
믿나이다. 천주 성자 말씀하신 모든 것을  
주님의 말씀보다 더 참된 진리 없나이다
- 십자가 위에서는 신성을 감추시고  
여기서는 인성마저 아니 보이시나  
저는 신성, 인성을 둘 다 믿어 고백하며  
뉘우치던 저 강도의 기도 올리나이다
- 토마스처럼 그 상처를 보지는 못하여도  
저의 하느님이심을 믿어 의심 앓사오니  
언제나 주님을 더욱더 믿고  
바라고 사랑하게 하소서
- 주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성사여  
사람에게 생명주는 살아있는 빵이여  
제 영혼 당신으로 살아가고  
언제나 그 단맛을 느끼게 하소서
- 사랑 깊은 펠리칸, 주 예수님  
더러운 저, 당신 피로 씻어주소서  
그 한 방울만으로도 온 세상을  
모든 죄악에서 구해 내시리이다
- 예수님, 지금은 가려져 계시오나  
이렇듯 애타게 간구하오니  
언젠가 드러내실 주님 얼굴 마주 뵈고  
주님 영광 바라보며 기뻐하게 하소서
- ◎ 아멘

## 하느님 찬미

1. 하느님은 찬미 받으소서
2. 하느님의 거룩한 이름은 찬미 받으소서
3. 참 하느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찬미 받으소서
4. 예수님의 이름은 찬미 받으소서
5. 지극히 거룩한 예수 성심은 찬미 받으소서
6. 예수님의 지극히 보배로운 피는 찬미 받으소서
7. 제대 위의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계신  
예수님은 찬미 받으소서
8. 보호자 성령은 찬미 받으소서
9. 주님의 거룩하신 어머니, 지극히 자애로우신  
마리아를 통하여 하느님은 찬미 받으소서
10.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의 거룩한 잉태를  
통하여 하느님은 찬미 받으소서
11. 마리아의 영광스러운 승천을 통하여  
하느님은 찬미 받으소서
12. 동정녀요 어머니이신 마리아의 이름을 통하여  
하느님은 찬미 받으소서
13. 마리아의 지극히 정결한 배필, 성 요셉을  
통하여 하느님은 찬미 받으소서
14. 하느님은 천사들과 성인들을 통하여  
찬미 받으소서
15. 한국 순교 성인들의 신앙과 증거를 통하여  
하느님은 찬미 받으소서

### 마침성가

#### 77 주 천주의 권능과

- 1) 주 천주의 권능과 위엄이 비할 데 없어 온 세상 모든 만물 감사 찬미 노래하네
- 2) 케루빔과 세라핌 성인 성녀 소리 맞춰 거룩하신 성삼을 무궁세에 찬송하네
- 3) 천상천하 왕이요 우주만물 창조자여 엄위로운 영광이 하늘땅에 가득하네
- 4) 사도들과 순교자 영광스런 무리들이 주의 이름 드높여 세세대대 찬미하네

후렴 : 시작이 없으시며 영원히 계시리라 시작이 없으시며 영원히 계시리라

## 부 속 가 [성체송가]

1. 찬양하라 시온이여, 목자시며 인도자신, 구세주를 찬양하라.
2. 정성다해 찬양하라, 찬양하고 찬양해도, 우리능력 부족하다.
3. 생명주는 천상양식, 모두함께 기념하며, 오늘특히 찬송하라.
4. 거룩하온 만찬때에, 열두제자 받아모신, 그빵임이 틀림없다.
5. 우렁차고 유쾌하게, 기쁜노래 함께불러, 용약하며 찬양하라.
6. 성대하다 이날축일, 성체성사 제정하심, 기념하는 날이로다.
7. 새임금님 베푸잔치, 새파스카 새법으로, 낡은예식 끝내도다.
8. 새것와서 옛것쫓고, 예표가고 진리오니, 어둠대신 빛이온다.
9. 그리스도 명하시니, 만찬때에 하신대로, 기념하며 거행한다.
10. 거룩하신 말씀따라, 빵과술을 축성하여, 구원위해 봉헌한다.
11. 모든교우 믿는교리, 빵이변해 성체되고, 술이변해 성혈된다.
12. 물질세계 넘어서니, 감각으로 알수없고, 믿음으로 확신한다.
13. 빵과술의 형상안에, 표징들로 드러나는, 놀랄신비 감춰있네.
14. 살은음식 피는음료, 두가지의 형상안에, 그리스도 온전하다.
15. 나뉘없고 갈림없어, 온전하신 주 예수님, 모든이가 모시도다.
16. 한사람도 천사람도, 같은주님 모시어도, 무궁무진 끝이없네.
17. 선인악인 모시지만, 운명만은 서로달라, 삶과죽음 갈라진다.
18. 악인죽고 선인사니, 함께먹은 사람운명, 다르고도 다르도다.
19. 나뉘성체 조각마다, 온전하게 주 예수님, 계시움을 의심마라.
20. 겉모습은 쪼개져도, 가리키는 실체만은, 손상없이 그대로다.
21. 천사의빵 길손음식, 자녀들의 참된음식, 개에게는 주지마라.
22. 이사악과 파스카양, 선조들이 먹은만나, 이성사의 예표로다.
23. 참된음식 착한목자, 주 예수님 저희에게, 크신자비 베푸소서.  
저희먹여 기르시고, 생명의땅 이끄시어, 영생행복 보이소서.
24. 전지전능 주 예수님, 이세상에 죽을인생, 저세상에 들이시어,  
하늘시민 되게하고, 주님밥상 함께앉는, 상속자로 만드소서.

## 성체성사와 성체현양대회

**성체성사**는 그리스도교 생활 전체의 원천이자 핵심으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 희생되시고 ‘모든 사람들의 죄 사함을 위해’ 당신의 몸과 피를 제물로 바쳐 우리에게 양식으로 남겨 주신 사랑의 성사이다. 또한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는 나눔의 잔치이며, 하느님께 드리는 최고의 흠숭과 감사의 제사이다.

**성체현양대회**는 성체에 대한 사랑과 신심을 드높이며 지극히 거룩한 성체안에 현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최고의 축제이다. 풍수원 성체현양대회는 1920년 처음 시작되어 6.25 동란 3년을 제외하고 꾸준히 이어와 올해로 99차를 맞이하였다. 또한 1996년부터 원주교구와 춘천교구가 공동으로 성체현양대회를 열고 있다.